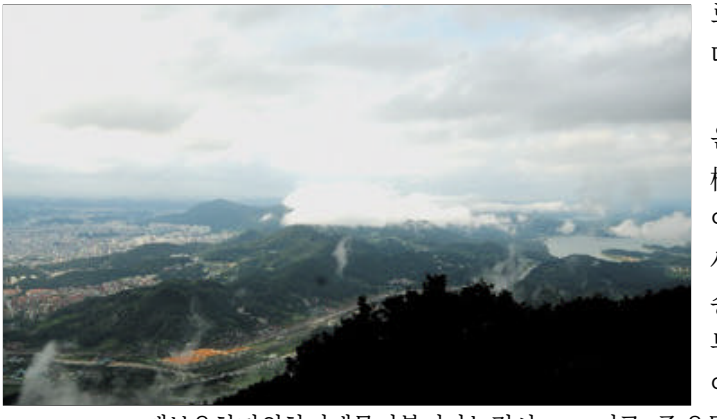
대전 보문산 - 여인 앙와형의 명산

대전시의 대표적인 세 명산을 꼽으라면 어느 산을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십중팔구는 조선시대 회덕 고을의 진산(鎭山)이었던 북쪽의 계족산(鷄足山), 대전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남쪽의 보문산(寶文山), 그리고 대전에서 가장 높은 동쪽의 식장산(食藏山, 해발 598m)을 꼽게될것이다.



서울의남산이나부산의용두산처럼대전에는높이 458m의보문산이있다. 대전시가지와밀착되어있어서특히대전시민의사랑을받을뿐만아니라, 예로부터이지방 민중 신앙의 대상지였던 유서 깊은 산이다. 멀리 백제시대에는 이 산이 신라와의 최전방 요새 역할을 했던 산이므로 산꼭대기의시루봉정상에는봉수대 터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고, 또 백제시대의 성으로 보이는 3개의 산성 터도 있다. 이미 일제 때인 1917년 일본인 스지라는 사람이 공원으로 개발하였기에 한때 ‘ 스지공원 ’으로불리기도하였던곳이다. 이산 이름에대해서는원래보물산(寶物山)이었는데, 어느 땐가 보문산으로 바뀐 것이라고 한다. 옛날 착한 나무꾼이 물고기로부터큰은혜를입어보물주머니를갖게되었다. 이주머니에는무엇이든지들어가면 큰산처럼쌓이는데, 흙이들어가서큰산더미같이쌓여서이산이되었으므로보물산이라부르게되었다는것이다.

또다른이야기로는, 이산기슭에한농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목마른 두꺼비를 살려주게되었다. 그러자두꺼비가농부에게보은하기위하여재물이불어나는접시 하나를 가져다주었는데다섯아들이이것을 탐내므로 이 산에 몰래 묻어두었기 때문이라고한다.

또 다른 설로는 보문산의 남쪽 무수동 계곡에 예전에 보문사(普門寺)라는 절이 있었으므로, 이절이름이산이름으로되었다고보는것이다. 사실산이름과절이름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 보문(普門) ’은불교에서말하는‘ 넓은문 ’이니‘ 보문(寶文) ’과는 뜻이 다르다. 보문산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온다. 조선효종때정승을지낸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지금의 소제동에서 살았는데, 조상의 산소가 있는 판암동이나 스승이있는연산에다니면서보문산을지나갈 때에는 꼭 부채를 들고 산을 가려서 보문산이보이지않게하였다고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보문산의 산세가 정상이 펑퍼짐하고, 옆으로뻗어내린산줄기가마치여인이 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라고도하고, 혹은보문산이관음보살형이나승려의고깔형으로생겨서한밭땅에불교가융성해질조짐을보이고있으므로, 우암이 이를 싫어하였다는것이다.

그런데 대전의 호사가들은 보문(寶文)을 여근(女根), 즉 옥문(玉門)으로 풀이하여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송우암이 이 산을 지날 때 부채로 가렸다는 이야기에 어느정도수긍이간다.

여근, 즉 옥문은 경건성을 중시하는 유교와불교에서는그이름을부르는것조차도 타락이요 금기시하였으니, 여인 앙와(仰臥) 형태의 보문산 모습을보지않으려는옛선비들의마음가짐을보여주는대목이다.

여담이지만, 불교에서 ‘ 보제(菩提) ’는 산스크리트어 ‘ 보디(bodhi) ’의 한자 음역이다. 보제란 불교에서 최고의 이상인 깨달음의지혜또는그수도과정을말한다. 그런데 ‘ 보제 ’가 우리말의 ‘ 보×와 소리가비슷하여신성한불자가수도하면서자주입에올리기곤란하므로‘ 보리 ’로고쳐서발음하게되었다. 가령보리심(菩提心), 보리문(菩提門), 보리강(菩提講), 보리수(菩提樹) 등이그예이다. 학자에따라서는 보리역시보×와그어원이같은말로보는사람도있다.

한편, 보문산공원에는 세계평화탑, 야외음악당, 충령탑과 전망대 등의 여러 시설이 있어서 대전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기빈
한국땅이름학회부회장